

참된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
-초기 개혁주의 역사를 통하여 본 개혁주의 근본정신-

발제 : 정종남 목사 (벤엘교회)

(신학적 논의나 목회적 고민이 있을 때...) 자신이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이다. ¹

머리말

세계 도처에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정립하고자 몸부림쳐 왔고, 또한 많은 업적을 남겼다.²

흔히 개혁주의는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사색의 핵심으로 삼고, 인간의 자율주의와 이성적 확신을 거부해온 종교적 사조로 널리 알려졌다.³ 그러나 개혁주의를 이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다소 아쉽다. 사실 개혁주의야 말로 교육과 사회, 민주주의적 인권 존중과 근면한 인생관 정립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다.⁴

개혁 신학은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확고히 고수함과 동시에, 각 시대마다 다양한 상황에서 출범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온 열린 신학이요, 지속적으로 형성, 발전되어 온 신학이다.⁵

개혁주의는 영적인 좌표를 확인시켜주며,⁶ 오늘에 되살려져야 할 힘의 원천이요,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게 하는 각성과 영감과 직관을 제공하기도 한다.⁷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지난 날의 신학적 메시지들을 생생하게 복원하여 마치 살아 있는 음성을 듣는 것처럼 접하게 되면, 그들의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활용하는 안목을 갖추게 되어 내일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확고한 전망을 갖추게 될 것이다.⁸

본 논문은 초기개혁주의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현대사회의 목회 현실 속에서 개혁주의의 의미와

¹ 김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 이레서원, 2003) p. 561

²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7

³ 김재성, 「개혁신학의 전망」 (서울 : 이레서원, 2004) p. 13

⁴ Ibid, p. 14

⁵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9

⁶ 김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 이레서원, 2003) p. 11

⁷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9

⁸ Ibid, p. 19

가치를 탐구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서론. 문제제기 및 연구범위

처음 개혁주의와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주제를 소개하려고 했을 때 나는 최대한 간략하게 개혁신앙의 중요한 기수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업적과 사역, 혹은 신학적인 특징을 간추려 설명하려고 했다.⁹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래의 목표는 연구를 진행하며 수정을 피할 수 없었다.

1) 개혁주의의 유산은 간략한 연구과제로 반추할 수 있는 만큼 간소하지 않다. 최근, 개혁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 인물사전이 한 권 출판되었는데, 무려 141명의 청교도들이 800페이지 분량의 서간에 소개되었다.¹⁰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조엘 비키는 이들 역시 1956년 이래 다시 그 저작이 재출판 된 사람들에 한정되며, 아직도 수 천 권의 책들이 출판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 개혁신학의 영향력의 범위는 실로 전 세계적이라는¹¹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물론, 방대한 자료를 요약하여 소개하는 작업 역시 충분히 연구 의미가 있고, 또한 완전히 불가능한 과제도 아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는 않으며, 더욱이 개혁주의 혹은 청교도 전체의 역사를 20페이지도 되지 않는 논문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천재성과 개혁주의 전체에 대한 깊은 안목이 요구되며, 오랜 시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2) 개혁주의의 역사를 정리한 전문적이고 방대한 작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취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순 사실에 관한 정보는 몇몇 자료를 추천하는 것만으로도 목표의 상당부분을 이룰 수 있는 것 같다.

3) 무엇보다 나는 개혁신학의 역사를 반추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개혁주의자들이 각기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메소디스트적(Methodist) 칼비니스트(Calvinist)로서의 자신을 소개하는 마틴 로이드의 설교에서 결정적인 영감을 얻었다.¹²

종래까지의 많은 자료들은 칼빈에서부터 조나단 에드워즈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일반적으로

⁹ 본래 이 논문의 제목은 “칼빈부터 에드워즈까지”였다.

¹⁰ 조엘비키 외, 「청교도를 만나다」 이상웅, 이한상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10) p. 21

¹¹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7

¹² 마틴 로이드 존스,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0) pp. 201-227

받아들이곤 한다. 흔히 개혁주의자들을 흔히 일컬어 '칼빈의 후예'라고 부를 정도다.¹³

어떤 이들은 이 명칭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과도하게 집착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다소 극단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곧 칼빈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사용한 용어나 문체까지 답습하려는 고집을 부리고, 칼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칼빈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단순한 진영 논리로 인해 대립각을 세운다.

하지만, 정작 로이드 존스나 심지어 에드워즈와 같은 정통 칼빈주의자의 저작을 칼빈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경향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에드워즈는 칼빈의 복제판이 아니었으며, 칼빈 역시 에드워즈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¹⁴ 특히 성령론과 성화의 대목에 이르게 되면 에드워즈는 칼빈은 물론이고, 어떤 의미에서 칼빈주의자로 여겨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¹⁵ 원죄론과 의지의 자유와 같은 책을 쓸 때 역시, 에드워즈는 청교도 저술가들의 책을 거의 인용하지 않고 대륙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몇 명 밖에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드워즈는 논적인 테일러와 톰볼이 존경하는 철학자인 프랜시스 허치슨이나 존 로크 같은 사상가들의 말을 인용한다.¹⁶

비록 이러한 차이점들이 결코 사소하다고 말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일치로 인해서 에드워즈가 칼빈주의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나는 존 녹스나 윌리엄 퍼킨스, 칼빈과 어거스틴과 에드워즈와 로이드 존스 그리고 바울이 서로 너무나 다른 어법과 사회적 선택 혹은 시대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결국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에 착안했으며, 이것이 본 소고의 중심 주제로 발전했다.

로버트 D. 너드센 교수는 이와 비슷한 고민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칼빈주의의 영향력은 무엇이며, 이 영향력은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확신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하나의 문화적 세력으로서의 칼빈주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좀더 깊은 차원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칼빈주의가 문화에 대해 취했던 특이한 방식을 결정지었던 것은 칼빈주의의 어떠한 특징이었던가?¹⁷

¹³ 1959년 기독교 사상은 WCC 문제로 얼룩진 당시 총회를 언급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고도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라는 논단을 냈다. (기독교사상 3권 10호 p. 7-10, 대한기독교서회, 1959)

¹⁴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pp.25-38

¹⁵ 양낙홍,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3) pp. 567-569

¹⁶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p. 176

¹⁷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리드 교수¹⁸나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던 스위니 교수¹⁹ 역시 칼빈주의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업적이나 혹은 독특한 성향 안에 있는 이들의 공통된 사회적 선택의 동기에 관심을 가졌다.

역사라는 현실이 역사학으로 인식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의 표면, 즉 '무엇을' 묻고 답하는데 매료되어 버린다. 그러나 어떤 일에든지 항상 근본적인 정신을 탐구하고자 할 때는 '무엇을' 이전에 '왜'와 '어떻게'를 물어야 한다.

나는 이 논문을 통해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는 명칭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을 고스란히 반복하거나 앵무새처럼 따라 하는 '형식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종종 스스로를 칼빈주의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를 읊어내고 신도계요를 암송하며 장로 정치를 주장하며 동시에 방언과 치유사역 및 강력한 회심의 증거를 둘러대는 것을 영적 할레처럼 여긴다.

그러나 나는 이 논문을 통하여 과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는가? 를 따지고 싶다.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과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가? 우리는 왜 이들을 칼빈주의자로 부르는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칼빈주의자로 만들었는가? 또한 이 질문은 현대 칼빈주의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신학적, 현실적, 역사적 그리고 목회적 질문들에 대한 작은 고민이다.

본론 1. 칼빈은 어떻게 칼빈주의자가 되었는가?

칼빈 연구에 관련된 많은 논문과 서적들은 칼빈 신학의 특징을 기술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그리고 칼빈 이후로 유럽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되었는지에 큰 관심을 갖는다. 물론 나는 이러한 동향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학자들이 의도를 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칼빈 이전에 이미 칼빈주의가 존재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생애 - 하나님의 섭리

칼빈에 대한 오해를 넘어 악용의 가장 빈번한 사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다. 한 언론 매체는 칼빈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p. 16

¹⁸ Ibid, pp. 37-59

¹⁹ 스위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 에드워즈의 사역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이들이 실패와 절망을 경험했어야 했다는 사실은 역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에드워즈의 말씀사역, p. 35)

칼빈의 교리 중 가장 대표적인 예정론을 보면 “영생이 예정된 자가 다시 영멸로 예정되거나 영멸로 예정된 자가 다시 영생으로 예정되는 변동은 없다”고 주장한다. 한 마디로 구원 받을 사람도 벌 받을 자도 이미 정해져 있어서, 선택된 자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용서가 된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²⁰

그러나 우리가 칼빈의 생애에 대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의 의도와 마음을 심분 이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칼빈은 하나님께서 길들이신 사람이었다.²¹

칼빈은 스스로의 회심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subita conversion)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앙 생활에서 자신의 기존 입장과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체험을 여러 번 반복했다. 신부가 되라는 아버지의 권고를 따라 파리로 갔다가 역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법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니콜라스 콕 사건으로 조용히 학자로 살고 싶은 꿈을 접고 제네바에 정착했으며, 그 후 역시 부처의 뜻에 따라서 스트라스부르그에서 3년간 머물렀다.²² 그러나 제네바 시민들은 다시 칼빈을 찾아 그가 전혀 원하지 않던 사역지로의 복귀를 요청했다. 칼빈은 이 때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라는 문장을 남기며 제네바로 향한다.²³

이처럼 칼빈의 삶에서 계획성이나 의도성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은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칼빈의 사역을 이끌어내갔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2) 성경 중심적 사고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은 교회의 역사와 결정보다 더 우선되었다. 칼빈은 하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당신에 관해서 해놓으신 증거들을 경외의 태도로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그분을 실제적이고도 생생하게 묘사해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 자신의 왜곡된 판단으로 평가하지 않고, 영원한 진리의 표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²⁵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지극히 복잡한 미로와 같다. 어느 길을 가든 죽음의 막다른

²⁰ 천지일보. 송태복 “한국교회 진단 (4) 칼빈주의 마녀사냥 역사 감추고 한국서만 기세등등” 2014.10.15 자)

²¹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서울 : 도서출판 갈뎡, 2010) pp. 213-234

²²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52

²³ Ibid, 155

²⁴ T.H.L 파커, 「칼빈신학입문」 박희석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38

²⁵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4권 3장

*길에서 이르게 된다. 미로의 중앙 곧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실타래'를 따라 한 걸음씩 따라 가는 것뿐이다.*²⁶

3) 경건

칼빈은 어린아이와 같이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굳건히 믿었다.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풀이하여 논리적으로 답을 찾지 말고 비밀스럽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²⁷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취사선택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다. 칼빈은 성경을 통하여 신학의 목적이 경건이라는 것을 확신했으며,²⁸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만이 성경이 전하는 특별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다.

*참된 경건은 아버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감정과 주님으로서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결합하여, 그분의 의로움을 흠모하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참된 경건이 주어진 사람은 그 누구든지 자신들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경솔한 행동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할 것이며 그분 자신이 어떠한 심을 보여주시고 선포해주시는 바대로 그분을 이해할 것이다.*²⁹

4) 교부들의 영향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교부들의 글을 탐독했고, 그것은 명확하게 이해했고, 또한 구조화했다. 칼빈은 인용과 종합의 천재였다. 그의 라틴어 실력은 이미 약관을 넘겼을 때부터 모국어에 가깝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에게 라틴어란 교부들의 저작을 들여다보는 중요한 문이었다.³⁰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칼빈은 교부들의 글을 무턱대고 인용하거나 따르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라 경건을 배우기 위해서 애썼고, 이것이 교부들의 글을 판단하는 기준을 세웠던 것이다.

나는 이어지는 역사적 탐구를 통하여 칼빈에게서 나타나는 이 특징이 그의 후예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논증할 것이다. 칼빈이나 칼빈의 후예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글이나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대부분 이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료들을 취사선택했다.

²⁶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4권 3장

²⁷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72

²⁸ Ibid, p. 157

²⁹ Ibid, p. 158

³⁰ Ibid, p. 147

칼빈주의는 칼빈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 칼빈 역시 칼빈주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다.

5)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

칼빈은 성경과 교부들의 글을 통해 현실을 고민했다. 칼빈은 엄연히 종교개혁자였고, 일종의 혁명가였다. 많은 사람들은 칼빈이 지나치게 이성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정직이었다. 그는 사고방식이 논리적이어서 헛된 연역과 유추를 피했고, 자기 스스로 모른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³¹ 사실 그는 보통 설교를 하는 것도 일관적인 계획에 의해서 본문을 선택했다.

칼빈은 시종일관 책상에서만 신학을 개발하거나 발명해 낸 천재도 아니며, 명상과 다른 사람들은 모방할 수 없는 내면의 음성을 따르던 신비주의자와도 구별되며, 자신의 직원이나 지위를 통해서 연약한 지체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권위주의자와도 거리가 멀다.

그는 종교 개혁자들의 글과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던 복잡한 주변 환경 속에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주력하였다. 따라서 칼빈의 신학은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온 것이요, 손과 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신학이다.³²

신학을 누가 입술의 학문으로 말하려는가? 누가 지식이나 암기력으로 다른 학문들처럼 신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오직 인생의 전부를 다 바쳐서, 영혼을 다 던져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찾는 것이다. ... 신학은 우리의 매일의 생화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그 동안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온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³³

본론 2. 초기 개혁주의 계승과 발전

칼빈주의는 일차적으로 영국과 스코틀랜드, 스위스와 독일과 프랑스 헝가리,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 및 오스트레일리아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방대해서 전체적인 특징을 빠짐없이 요약하는 것 역시 간단하지 않다.

나는 본 논문의 목적을 따라, 칼빈주의가 전파된 각 도시와 국가에서 동일한 칼빈주의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던 사회, 정치적 배경과 특징을 고려하며 칼빈주의 초기의 역사를 제시하려고 한다.

³¹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48

³²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162

³³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3권 4장

1) 스위스 : 제네바를 하나님께로!

1-1)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취리히에서 울리히 츠빙글리로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칼빈의 초판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사망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제네바의 종교 개혁은 기욤 파렐이 착수했다. ³⁴ 파렐은 1532-1536년 사이에 있었던 제네바의 운명적인 역사의 한 가운데서 제네바 의회의 개혁주의 노선 정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2) 스위스 교회의 상황

칼빈의 사역 당시 가장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던 문제는 교회의 파문권에 관한 결정이었다. 이 당시 제네바 교회는 '존엄한 목사회'와 '교회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목사회는 엄밀하게 교회적 기능만을 보유한 반면, 교회 법원은 교회와 관련된 사회적 치리를 관할하던 기관이었고, 당연히 목회자들이 아닌, 사회적 유력 인사가 대부분 그 자리를 맡고 있었다.³⁵

그러나 칼빈으로서는 교회 법원의 구성원과 같은 중요한 책임자들이 매춘부와 깊은 관계를 맺거나 고주망태가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물론 칼빈은 교회가 세상의 사법부와 같은 권위와 질서를 갖는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또한 교회가 사회를 떠나 완전한 독립체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제네바 시민들은 정치적인 선택에 의해 신교도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제네바 교회의 회원들이 대부분 명목상의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³⁶ 그러나 칼빈은 물론이고 파렐과 같은 개혁자들 역시 이름뿐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설교와 권면과 성례를 집전해 나갔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칼빈은 끝까지 교회의 파문권을 '교회법원'으로부터 지켜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교회는 이미 교회의 '파문권'을 보장받은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칼빈 시대와 달리 사회적 파장을 만들지 못한다. 그 이유는 분명한데 정치인들 중의 누구도 상대방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당시로서 교회가 파문권을 가져 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로 직결되는 문제였다. 당연히 시의회는 교회로부터 파문권을 지키려 했고, 심지어 블링거와 츠빙글리 역시 교회의 파문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³⁷

³⁴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16

³⁵ Ibid, 65

³⁶ Ibid, 65

³⁷ Ibid, 67

1-3) 스위스의 칼빈주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은 스위스 종교개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 칼빈은 생명을 다해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바로 이 운동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매우 정치적인 행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정교 분리는 정치권에 대한 교회의 막강한 압박이었다. 정교분리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정황을 무시한 채 단순히 교회의 권징권을 주장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요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물론 나는 여기서 교회의 권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존 녹스가 칼빈이 아닌, 제네바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완벽한 학교³⁸라고 불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칼빈이 교회의 권징으로 시도했던 것은 정부의 권세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불링거나 츠빙글리와 같은 개혁자는 그러한 시도에 반대했다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불링거와 츠빙글리는 교회 정화에 관심이 없어서 교회의 파문권을 보류한 채 종교 개혁자가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칼빈이 불링거와 츠빙글리에게 보낸 편지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칼빈이 이들은 얼마나 진실한 스승과 친구로 대했는가?

칼빈은 성경 중심적인 사람이었지만 교회나 사회 제도적 개혁은 상당부분 그가 당면한 상황에서 성경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계산하고 또한 노력한 결과였다. 과연 우리가 여기서 이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가 진심으로 고민했던 그 삶의 태도인가? 아니면 칼빈 나름대로 행했던 정책이나 혹은 수단이었는가?

2) 프랑스 : 인내와 투쟁

2-1)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

프랑스에서 전 칼빈주의자들의 시기에 이미 장 발리에르(Jean Valliere), 자크 파방(Jaques Pavans), 루이 드 베르퀼(Louis de Berquins), 장 드 카튀르스(Jean de Caturce) 등을 비롯해서 복음주의적 신앙을 지키려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위그노(Huguenots)들은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훌륭한 논문인 '기독교 강요'의 제 3권 6장부터 10장까지의 권고 사항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다.³⁹

이 박해의 시기에 얼마나 많은 위그노들이 외출이나 여행 할 때마다, 널찍한 외투 호주머니 안에, 개인적으로 주석을 달거나 주요 구절에 밑줄을 그은 불어 성경이나 '강요'의 사본, 또는 제네바나 바젤에서 온 개혁주의 소책자를 넣고 다녔던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³⁸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338

³⁹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87

행위가 그들 자신의 옷이나 집 안의 책상 서랍, 찬장 또는 다른 은밀한 장소나 직장 또는 농장에서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자의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던가! 장 크레스팽은 1619년에 시몽 굴라르 목사가 첨부해서 완성한 그의 책 순교론에서 순교자 789명의 비화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밖에 사형을 받거나 살해된 2,120명의 이름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화형대의 불길이 더욱 높이 타오를수록, 개혁 신앙의 불꽃도 더욱 높이 치솟았다. ⁴⁰

2-2)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

1555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는 개혁교회가 단 5개만 조직되어 있었다. 그러나 약 7년이 경과한 후 1562년에는 무려 2,150개의 개혁교회가 세워졌다.⁴¹ 이것은 사실 1559년 종교법원, 교무회, 지방종교회의, 국가 종교회의를 포함하는 국가 정책이 채택 ⁴² 된 이후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히 폭발적인 증가였다. 게다가 1559년의 정책이 개혁교회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담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단지 어떤 교회도 다른 교회보다 우위를 차지할 수 없었을 뿐이다.

⁴³

그러나 프랑스의 개혁주의는 수차에 걸친 종교전쟁으로 인하여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다. 사무엘 루르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만일 종교전쟁이라는 재앙이 나라를 덮치지 않았더라면, 프랑스는 월등한 개신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결국 1685년 낭트칙령이 폐지되자, 위그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이 때 프랑스를 떠난 사람들의 수는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⁴⁴

2-3) 프랑스의 위그노

개혁주의 가운데 어떤 이들은 반대자들과 같은 폭력을 행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공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남아 있던 개혁 교회 신앙은 더욱 깊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⁴⁵ 이들은 칼빈의 다음과 같은 말을 가슴에 꼭 품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에 따라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우리의 편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것을 부인하자. 한 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⁴⁰ Ibid, p. 89

⁴¹ Ibid, 87

⁴²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 반석문화사, 1992) p. 48

⁴³ Ibid, p. 49

⁴⁴ Ibid, p. 49

⁴⁵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95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생의 전부를 바쳐서라도, 오직 우리의 타당한 목표인 그분을 추구하자. 제멋대로 자기를 지배하거나 통치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을까!⁴⁶

이들은 스위스와 같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정책은 물론이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새로운 대륙에서 믿음의 가치를 실험할 수도 없었다. 스코틀랜드의 장로정치를 흉내 낼 수도 없었다. 위그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결단자가(Huguenots)되는 것이었고, 나는 그들 역시 우리와 동일한 칼빈주의자였다고 생각한다.

3) 네델란드 :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3-1)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

네델란드 역시 칼빈의 사역 이전에 칼빈주의는 시작되었다. 얀 반 로이스 부루크의 제자인 헤르트 흐로테(1340-84)는 공동 생활 형제단으로 알려진 모임을 형성했는데, 그 모임은 그리스도에 헌신하는 실질적인 삶을 강조했다. 형제단은 수도원적 원칙에 따른 관습에 기초했지만 사람들을 맹세하게 하여 그 모임에 구속시키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교육의 가치를 주장했으며, 학교를 세우려고 노력했다.⁴⁷

이들은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을 따랐으며 경건한 생활과 더불어 성경 연구를 강조하였다. 루터의 저서들을 1520년대부터 정죄받고 있었으며, 그를 추종하던 보에스(Henry Voes)와 에쉬(John Esch)가 화형을 당했다. 로데와 썬빙글리가 만나면서 (1523) 개혁주의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프로테스탄트의 개혁주의 유형이 견고하게 확립되었다.⁴⁸

3-2) 네델란드의 정치적 상황

네델란드는 구교와 신교 그리고 제세레파가 각축을 벌였다. 특히 제세레파 운동이 루터주의보다 더 많은 주목을 끌었고, 더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다. 그 운동은 마을의 노동자 계층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 있었다. 이 때 그 심한 역경 속에서도 부드럽고 이성적인 정신으로 이 운동을 지도했던 이가 멘노 시몬스(Menno Simons)다.⁴⁹

사실 제세레파에 대한 유별나게 비인간적인 박해의 압력하에서 이 열정은 점차 광신적이 되어갔고, 1535년 윈스터 사태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⁵⁰ 일단의 재세레파가 윈스터를 함락한

⁴⁶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3권 6장

⁴⁷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112

⁴⁸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 반석문화사, 1992) p. 49

⁴⁹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294

⁵⁰ Ibid, p. 294

후 그 곳을 새 예루살렘으로 명명하고 신정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이루려는 과격한 개혁으로 도시는 곧 혼란에 빠져들었다. 미혼여성을 모두 결혼시켜 남성이 모자라 일처다부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 예다. 이런 소식에 분노한 신교 연합군의 공격에 1년여 만에 도시가 함락되고 지도자들은 생포되었다.⁵¹

이 사건 이후로 정부측에도 변화가 생긴다. 1550년 찰스는 종교에 관한 외국 서적과 성경의 화란어판과 라틴어판을 유포하는 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과하다는 칙령을 발표하기 이른다.⁵² 네덜란드 개혁신교회와 정부의 오랜 싸움인 관용 정책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찰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필립은 프랑스 및 교황 바울 4세와의 전쟁으로 어지러운 상황에서도 네덜란드 안의 개혁운동을 섬멸한 계획을 착수한다. 네덜란드인들은 이 스페인 혈통의 국왕에게 전혀 친밀감을 느끼지 않았다. 게다가 필립은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세금을 거두었고,⁵³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방인들이 정치적 유익을 누렸던 반면, 종교적 박해로 숨진 이들은 대부분 네덜란드 인이었다. 결국 오렌지의 윌리엄(William of Orange, 1533-1583)은 '그 땅에서 스페인의 버러지들을 다 몰아내려고' 마음 먹게 되었다.⁵⁴ 이처럼 극적이고 치열한 정치 투쟁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이 독립운동가들의 국민운동을 부추기는 새로운 종교 세력이 화란에 출현했다.⁵⁵

1559년 필립이 자신의 본가인 스페인으로 떠났을 때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을 냈다. 바야흐로 각 대륙은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1566년부터 네덜란드는 오렌지 공을 필두로 독립전쟁을 개시한다. 어떤 역사가들은 독립전쟁의 동기는 세속적 관심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독립군의 조직을 조사해보면 우리는 이 운동이 다분히 종교적이었다는 것 역시 발견할 수 있다.

1565년 10월 2일 프랑스 칼빈주의자인 프란시스 뒤 존이 전국적 해방 운동을 계획하기 위해 브뤼셀에 귀족 20명의 조직을 기도로 설립했다. 또한 1574년 홀란드(Holland)와 질란드(Zeeland) 지방이 오렌지의 윌리엄 아래 연합된 이유 역시 로마 카톨릭에 대한 편견없이 윌리엄의 지휘 하에 필립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윌리엄은 1584년 피살되었지만, 그의 아들 모리스는 1609년까지 전쟁을 지휘하여 구엘더란드, 유트레히트, 프리슬랜드, 오베리셀, 질란드 및 홀란드를 동 프리슬랜드 독일 공작령으로부터 해방하여 이 풍부한 땅에 화란 공화국을 설립했다.

⁵¹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 IVP, 2005) p. 164

⁵²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294

⁵³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서울 : 도서출판 갈뱅, 2010) p. 63

⁵⁴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297

⁵⁵ Ibid, p. 296

네덜란드의 칼빈주의는 바로 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려 성장한 것이다.

3-3)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그 시작에서부터 사회개혁운동가들과 보조를 같이 했다. 이 지방은 본래 루터의 영향이 지대했지만,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각 지역의 영주들이 칼빈주의를 더욱 환영했고,⁵⁶ 사실상 이것이 네덜란드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를 결정했다. 물론, 오렌지의 윌리엄은 네덜란드의 옛 권리를 되찾고 종교 박해를 피하려면, 아직까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을 신봉하는 귀족들과도 연대해야만 했으며,⁵⁷ 알미니우스 파 역시 친정부적이었다.⁵⁸

윌리엄과 모리스는 모두 엘리자베스보다는 교리적으로 개혁주의에 가까웠지만, 엘리자베스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순수하게 종교적인 이유로만 살 수 없는 위치였다. 유명한 도르트 회의(1618-19)는 끝내 '항의파'들을 회유, 설득하지 못했다. 잉글랜드의 국왕 제임스 1세가 평가한 바와 같이, 도르트 총회는 가히 칼빈주의자들의 국제적인 첫 회합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⁵⁹

'항의파'들 역시 회합에 참여했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마치 죄수나 이단자와 같이 인식되었고, 토론은 전혀 공개된 형식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새로운 신학의 신봉자들로 불려나와 정죄되었다.⁶⁰ 결국 정부는 교회의 이미 교회의 실권을 차지했던 칼빈주의자들과 손을 잡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도르트 총회를 기점으로 네덜란드 교회가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개혁교회는 중앙정부의 여러 협력 기관 중에 하나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 이상의 지위를 누리지는 못했다. 정부는 여전히 종교 문제에 있어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1622년 무렵에 칼빈주의 개혁교회는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불과 5%에 지나지 않았다.⁶¹ 이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미완적인 신앙의 자유를 제공받았다. 오늘날 화란 교회가 '자유 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 스코틀랜드 : 오직 은혜!

4-1)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

로버트 브루스와 존 낙스 사이의 소란한 두 세기 동안의 스코틀랜드는 제대로 통치되지 못하던 나라였다. 끊임 없는 영국-프랑스의 싸움의 와중에서 저당물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내란과 지방

⁵⁶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p. 343

⁵⁷ Ibid, p. 382

⁵⁸ Ibid, p. 365

⁵⁹ Ibid, p. 367

⁶⁰ Ibid, p. 368

⁶¹ Ibid, p. 383

씨족들 간의 적의에 찢기고 있었다. 문화는 낙후되어 있었고 생명과 재산은 거의 보장받을 수 없었다. 후기에는 애처로운 정도로 나이 어린 국왕들이 왕위를 계승했고 반대받는 섭정들의 정치로 인한 혼란의 결과, 군주정은 허약했고 귀족들은 반란을 일삼았고 교회는 부패하였다.⁶²

그러나 이와 같은 소망 없는 땅의 여기저기에서 존 위클리프와 같이 일반백성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데 관심을 가진 그의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전도자들 중에 하나인 제임스 레스비는 잉글랜드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새로이 옛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였고, 1408년 순교했다. 루터가 나기 이전에 그의 가르침의 상당한 부분을 앞질러 논했던 롤라드 파 역시 스코트랜드에서 발흥했는데 그들은 모든 남녀 신자들이 곧 사제라고 선언했다.⁶³

4-2) 스코트랜드의 정치적 상황

1558년 스코틀랜드 최후의 순교자가 나왔으니, 곧 루난의 사제인 82세의 월터 밀른이 성 앤드류스에서 화형당했다. 그리고 악명 높은 메리 튜터 역시 그를 뒤따랐으며, 1558년 11월 엘리자베스 즉위 후 영국의 종교개혁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로 귀국한다. 그는 메리 여왕의 치세기간(1553-58년) 동안 여러 나라를 전전하며 망명 생활을 했지만 단 한 순간도 그 스승 위샤르트가 불에 타 죽어갔던 고국을 잊지 못했다.

1559년 말경 프랑스의 개입과 엘리자베스 여왕의 번덕으로 종교개혁의 명분이 위험에 빠지게 되자 낙스는 그 유명한 설교에서 그의 동료들에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라 ... 그분은 우리가 거짓 없이 행한다면 .. 슬픔과 혼란과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 영광, 담대함으로 바꾸실 것이다.”라고 설교했다. 그의 설교로 수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앙으로 돌아섰으며, 결국은 그의 기도와 설교대로 하나님께서 스코틀랜드에 승리를 허락하셨다.

낙스의 설교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다른 사람들은 교황제의 가지들을 쳤으나 그는 뿌리를 쳤다.’고 사람들은 말한다.⁶⁴

의회는 1560년 8월 17일에 낙스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작성된 신앙고백서를 승인하셨다. 이날의 사건에 대하여 토마스 맥크리(Thomas McCrie)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스코트랜드 국민들은 의회가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개신교 신앙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종교 개혁이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자, 국민들이 이미 수용한 신앙을 비준하는 일만 남은 것이다. ... 의회는 복음을 비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언을 비준한 것이

⁶²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266

⁶³ Ibid, p. 266

⁶⁴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p. 337

4-3) 스코틀랜드 장로교

스코틀랜드는 험난한 여전을 통해서 개혁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개혁운동은 단순히 개인의 교리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개혁과 구조를 변경하게 되었다. 사실상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너무나 놀랄 만큼의 선물이어서 낙스와 그의 동료들은 신조를 만들어 낼만한 시간적 여유나 지적 훈련을 구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칼빈의 업적을 참조하게 된다.

제 1 치리서는 1560년 5월에 단 3주 만에 만들어졌지만 그 영향력을 지대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 역사의 기틀을 제공한다. 제 1치리서에 의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임으로 모든 신자들은 그 나라의 종교를 관리함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다. 물론 '완고하고 게으른' 거지들은 교회의 회원으로 배격되었지만 과부, 고아, 노인과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따뜻하고 동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재산에서 그들을 위한 대비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적당한 거리 안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의 교리를 논의하기 위한 매주 훈련 모임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의장을 두어 모임의 사회를 보고 욕설이나 주제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노회(presbytery)의 시초인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설교자의 긴급한 필요성이었다.⁶⁶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낙스의 최후의 기도 중에 하나가 "주여, 당신의 교회에 참 목회자들을 허락해 주소서"였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라는 이 독특함은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영적 성장이 매우 시급했던 스코틀랜드의 형편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5) 영국 : 절망의 끝, 희망의 시작!

5-1) 칼빈 이전의 칼빈주의

영국의 종교개혁은 이미 롤라드를 거쳐서 14세기, 특히 "종교 개혁의 셋별" 존 위클리프까지 서슬러 올라가는 토착적 흐름을 자랑한다.⁶⁷ 디킨스 교수는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복음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동시에 성경의 메시지가 죄많은 인간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이라는 제시했다.⁶⁸

복음에 의해 생이 바뀐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를 신앙 안에서 격려하기 위해 케임브리지

⁶⁵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 진리의 깃발, 2003) p. 62

⁶⁶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272

⁶⁷ Ibid, p. 207

⁶⁸ Ibid, p. 208

구내의 화이트 하우스에 모이곤 했다. 후에 그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 밖으로 나갔고, 새로 찾은 신앙을 위해 순교했다.⁶⁹

5-2) 영국의 정치적 상황

영국이 칼빈주의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엘리자베스 1세대였다. 물론 그녀 역시 자신의 종교적 관점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정신이 자신의 개혁들을 지배했다.⁷⁰ 사실상 그녀의 가장 큰 관심은 그녀의 아버지 헨리 8세가 최초로 주장했던 교회 안에 국왕의 수위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⁷¹ 사실 이것은 당시 영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던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일단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들은 무엇보다 교회가 '교황'에게 종속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결국 1559년 부활절 이후, 의회가 재소집되어 두 개의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된다. 수장령에 의해 엘리자베스 여왕은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옹립되었고, 공동기도서가 비준되었다.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하여 개혁주의자들은 교리의 만족과 교회 의식의 양보를 이루었고, 이것이 성공회로 불리워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타협으로 보였다. 말하자면 여왕과 개신교도들 양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양보를 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⁷²

이들이 볼 때 영국교회의 신조는 칼빈주의적이고 예배는 교황주의적이고 성직 제도는 알미니안주의적이었다. 그들의 공동 기도서에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에 대한 충분한 강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들은 교회의 영적 권징이 부족하다는 것에 불만이였다. 게다가 고질적인 악습, 곧 목사들이 무분별하게 안수를 받거나 성직 중임제, 교구에 부재하는 성직자, 십일조의 잘못된 사용과 같은 그러한 악들을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⁷³

하지만, 모든 확신있는 개신교도들이 비국교파 청교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잘못된 일일 것이다. 그린델은 불링거에게 '지금 감독들인 우리는, 처음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열렬한 논쟁을 .. 야기한 그러한 것들의 제거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왕이나 의회를 이길 수 없었기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상의 끝에, 약간의 의식들 때문에 그리고 그 자체로서는 불법적이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복음의 순수한 교리가 모든 온전함과 자유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편지했다.⁷⁴

⁶⁹ Ibid, p. 209

⁷⁰ 피터 툴을 비롯한 대개의 학자들은 엘리자베스 자신은 루터파에 가까웠다고 믿는 것 같다.

⁷¹ 피터 툴, 「청교도와 칼빈주의」 양낙홍 역 (서울 : CLC, 2009) p. 18

⁷² Ibid, p. 19

⁷³ 마틴 로이드 존스,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0) p. 204

⁷⁴ 피터 툴, 「청교도와 칼빈주의」 양낙홍 역 (서울 : CLC, 2009) p. 21

그렇기 때문에 적잖은 감독들이 비국교도들을 눈감아 주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교구 교회들이 대개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목사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565년 1월 25일 여왕은 대주교 파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직자들이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 기도서를 충실히 사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녀는 대주교와 그의 감독들이 국교 체제에의 순응을 성직자들에게 강력히 밀어 붙일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것은 개신교 감독들로 난처한 처지에 빠지게 했다. 그들은 많은 비국교도들이 좋은 목사들이며 특별히 북부 영국에서는 로마 카톨릭 주의가 성경적 개신교주의 설교에 의해 가장 잘 근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여왕은 강력한 제재와 법규를 들먹이며 계속해서 감독들을 압박했고, 결국 이것은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을 두 갈래로 나누어버렸다.

5-3) 영미의 청교도

비국교도들은 역사를 통하여 런던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역을 하게 될 때에 비교적 자유로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비국교도들은 점점 더 먼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침내 1608년 '순례자 조상들' (Pilgrim Father)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스크루비를 떠나 네덜란드의 라이덴에 정착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네덜란드 풍습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기독교인인 문명과 복음적인 교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남미나 북미에서의 정착 가능성을 모색하게 했다.

그리하여 1620년 9월 6일 플리머스에서 메이 플라워 호를 타고 케이프 코드에 뉴잉글랜드 식민지에 정착했다. 이후 1630년대에 추천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그곳으로 오게 되었다.

본론 3. 요약 및 정리

*만일 저 훌륭한 사람들의 지식과 선한 뜻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과 동일한 권위의 도움으로 동일한 시대의 자유를 누리며, 시대의 불법과 고위 성직자들의 폭정을 통해 제한 받지 않았다면, 지금 그들이 생소하다는 이유로 정죄하고 거부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유서 깊은 것인지 잘 드러났을 것이며, 보너가 토마스 흑스를 비롯한 롤라드에게 다음과 같이 사십년 전에 너희 교회는 어디 있었느냐고 심문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사십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공언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고백과 동일한 교리가 그렇게 풍부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⁷⁵

1) 칼빈주의에 있어서 칼빈의 위치와 역할

칼빈주의란 칼빈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칼빈에게 배움을 받고 이것으로부터 회심과 확신을 얻는 사람들의 소그룹이 아니다. 칼빈주의는 칼빈 시대는 물론이고 그 이전 시대에도

⁷⁵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p. 207

존재했다. 칼빈의 노고와 사역의 열매를 비하해서는 안되겠지만, 그의 사역을 변치 않는 모범으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의미에서 칼빈주의가 영향을 미쳤던 대부분의 나라는 이미 칼빈주의가 시작되어 있었다. 칼빈은 칼빈주의에 편히 이를 수 있었던 다리에 불과했다.

큰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삶의 원리는 그 이후의 후대들에게 잘 정리해주었다. 그러나 칼빈 이후의 칼빈주의자들이 반드시 칼빈을 통해서만 칼빈주의를 배운 것은 아니다. 바울이 바울 신학의 창시자가 아닌 것처럼 칼빈은 칼빈주의의 창시자가 아니다.

2) 계승자들의 사회적 고민과 진실한 헌신

또한 칼빈주의가 각 지역에서 칼빈주의, 장로교회, 위그노, 개혁파라고 구별되어 불린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모두 저마다의 상황에서, 저마다의 고민, 그리고 저마다의 헌신으로 저마다의 삶을 살아 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16세기 제네바가 아닌 이상 우리는 결코 칼빈과 같은 사역을 할 수 없다.

특히 이 모든 시대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현대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심지어 제네바에서도 시민권과 교회 회원권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교회와 국가의 친밀도, 칼빈주의가 전파되었을 때의 각 나라의 상황과 주변 국들과의 관계, 심지어 국왕 개인의 가정사까지 칼빈주의가 발전되는 특별한 방식 차이를 만들어 내었다.

결론. 개혁주의의 근본정신

개혁주의의 전통은 일종의 정거장이자 도구일 뿐이다. ... 개혁주의 전통은 두고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이르고 예수님과 더불어 가야 하는 하나의 길일 뿐이다. 개혁주의 전통은 하나님 나라의 선착장으로 우리를 실어 나르는 배요, 성육신하신 말씀과 맞닥뜨리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도구일 뿐이다.⁷⁶

개혁주의의 핵심은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담보 혹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개혁주의자가 되는 것보다는 개혁주의자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역사는 감사와 비판이 규형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감사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빠지기 쉽고, 비판은 자칫하면 경멸로 이어진다.⁷⁷ 우리는 개혁주의라는

⁷⁶ 제임스. K.A. 스미스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호준 역 (서울 : 새물결 플러스, 2010) p. 15

⁷⁷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 반석문화사, 1992) p. 1

전통이 세워진 가운데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마치 부모의 성을 물려 받는 것처럼 개혁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들은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고민과 투쟁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이 이미 우리에게 물려 내려온 전통을 답습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다. 능력이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형상이 능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항상 개혁되어 간다는 뜻의 셴페르 레포르만다(simper reformanda)임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은 완전한 성취를 이룬 만고 불변의 이상처럼 떠받드는 것은 오히려 개혁주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다.⁷⁸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오는 많은 문제와 진리의 전장에서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개혁주의라는 그 허울만을 좇는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고집이다. 이것이 바로 각 대륙의 초기 개혁주의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참된 것을 계승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참된지 아닌지 모르고 따라간다면 별 의미가 없다. 이것이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렇게 강조했던 겸손과 경건이며,⁷⁹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내놓더라도 지키려고 했던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며, 곧 개혁신학 역사의 중추다.

⁷⁸ 제임스. K.A. 스미스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호준 역 (서울 : 새물결 플러스, 2010) p. 52

⁷⁹ 우리의 종교의 토대가 겸손이라는 크리소스톰의 말은 언제나 감동적이다. 하지만 어거스틴의 다음의 말은 특히 그렇다. 가장 호소력 있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 웅변가가 첫째도 '전달'이요, 둘째도 '전달'이요, 셋째도 '전달'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내게 묻는다면 나 역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로도 '겸손'이요, 셋째로 '겸손'이라고 답할 것이다. (기독교 강요. 2권 2장 11절)

부록 1. 칼빈주의적인 이단들

1) 낮은 칼빈주의자들

모아즈 아미로(1596-1664)는 프랑스 소뮈르 신학교 교수가 되기 전에 법학을 전공했으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고 신학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아미로는 '낮은' 칼빈주의를 창시한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소위 아미랄디즘(amyraldianism/Amyraldism)으로 불리는 학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다.

한 사람의 신학자로서 그는 누구보다도 칼빈을 철저히 존중하고 따랐던 칼빈주의자였다고 자부하였을 만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칼빈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 언약의 보편적인 부분을 위한 기초를 제시하고자 그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주장했다. 준비는 보편적이지만, 그 적용은 특별하여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정된다는 것이었다.⁸⁰ 흔히 이것을 가설적 보편주의라고 부른다.

아미로 이러한 속죄론의 근거를 칼빈의 보편은혜와 특별은혜의 구별에 두고 있다. 아미로는 자신이야말로 칼빈의 은총론을 가장 확실하게 이해한 사람인 듯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2) 반율법주의자들

칼빈주의적 반율법주의자들은 전통적이고, 표준적으로 공적인 회의에서 결의한 개혁주의의 교리적 문서들에 반대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높이기 위해서였다.⁸¹ 이들은 오직 은혜의 슬로건에 사로 잡혔다.

이들은 믿음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 가운데 하나로 생각했다. 이들의 해석은 결국 믿음을 갖기 전에 이미 영원한 칭의를 얻는다는 논리적 비약으로 나간다.⁸²

3) 신율법주의

신율법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예비주의자들과 거의 같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들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또는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4) 하이퍼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은 복음이나 은총이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제시하는 자유라는 개념보다 진지하고 심각하며 진정한 제시만이 유익하다고

⁸⁰ 김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 이레서원, 2003) p. 539

⁸¹ Ibid, p. 391

⁸² Ibid, p. 392

보았다.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preach)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시(offer)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주장한다.⁸³ 이들은 초청한다(invite)역시 거부하는데, 결국 반선교주의(anti-mission) 연관이 된다.⁸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나는 것이다. 그것은 유명한 도르트 신조다.

하이퍼들에 의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한적인 속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 속에 속죄의 보편성을 내포하게 된다는 가설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⁸⁵ 또한 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발견한다.⁸⁶ 이들은 구원의 복음을 힘을 다해 전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했는데 그 이유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었다.

5) 정리

① 칼빈이 사용했던 용어들을 근거로 스스로가 가장 칼빈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없다.

② 몇 가지 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균형을 잃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교리라는 것은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은혜가 사랑을 설명하고 사랑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 칼빈주의적 이단들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신념, 혹은 개인과 단체의 목적에 따라 하나의 교리를 강조한다.

③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칼빈주의적 이단의 공통점이다. 높은 칼빈주의는 '낮은' 칼빈주의자들의 강조점이나 주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반대로 '낮은' 칼빈주의자들은 '높은'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이 너무나 경색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더 낮은 단계로 치달았다.⁸⁷ 옳고 그름의 문제가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시점은 우리가 사랑을 그치는 순간이다.

④ 과거에 진술된 칼빈주의의 교훈을 배우고 익혔다는 사실이 역사 안에서 실제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의 전부다 아니다. 칼빈이든 루터든 에드워즈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이다.

⁸³ Offer와 preach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이퍼 교도들에 의하면, offer는 말은 '당신이 복음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반해 preach는 '당신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결정하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⁸⁴ Ibid, p. 423

⁸⁵ Ibid, p. 423

⁸⁶ Ibid, p. 424

⁸⁷ Ibid, p. 526

부록 2.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특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에드워즈에게 눈을 돌린다. 에드워즈야 말로 칼빈 이후 가장 칼빈주의다운 교회 개혁자였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선천적으로 영민했을 뿐 아니라, 늘 진지한 학문적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영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견고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다는 것이다.⁸⁸ 사과가 사과나무 근처에 떨어질 수 밖에 없듯이, 당시의 아이들은 오늘날 서구 사회의 아이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이끌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에드워즈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성령으로 변화된 삶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⁸⁹ 에드워즈는 모든 일에 대한 합리적으로 성경적이고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이해는 그의 지속적인 목표였다.⁹⁰ 훗날 에드워즈는 그의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은혜롭다고 말하는 것과 그 거룩함의 은혜에는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꿀이 달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직접 맛본 적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꿀이 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그 맛을 느낄 때 달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 다시 말해 추상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을 통해 어떤 사물의 탁월함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물의 아름다움과 달콤함을 직접 느끼는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오직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요 후자는 마음까지도 관여하는 것입니다.

91

그렇다면 에드워즈는 어떻게 해서 이 살아 있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씀⁹²을 읽을 때 내 영혼에 문득 찾아온 것은 이전에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느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다. 지금까지 성경의 어떤 말씀도 이 말씀처럼 가슴 깊이 다가온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신지 생각했다. 또한 내가 천국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며 그분께 사로잡히고 영원히 삼킴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다. ... 내 마음은 그리스도에

⁸⁸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p. 42

⁸⁹ Ibid, p. 42

⁹⁰ 존 파이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용중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7) p. 125

⁹¹ 조나단 에드워즈, 「신적이며 영적인 빛」 백금산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4) p. 127

⁹² 딤편 1: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관해 읽고 묵상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타
오르는 내 영혼의 열정이여!*⁹³

에드워즈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책은 '성경'이었다. 그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연구한 책은 성경이다. 그의 종교적 원칙들은 어떠한 사회 체계나 신학 체계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 바로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다⁹⁴ 에드워즈는 개혁 신학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 구식이거나 (즉, 최근 사상보다 뒤쳐졌거나)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했다.⁹⁵ 당연히 이러한 시도는 에드워즈가 개혁주의에 대한 도전자로 비춰지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성경적 사고를 기반으로 이런 시도에 거침이 없었다.

그러므로, 에드워즈로부터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타임머신을 타고 그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세계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다 의미 있게 여기며, 그가 남겨준 지혜들을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것이다.⁹⁶

⁹³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p. 50

⁹⁴ Ibid, 97

⁹⁵ 존 파이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용중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7) p. 266

⁹⁶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p. 36

부록 3. 존 낙스와 메리 여왕의 대화⁹⁷

여왕이 낙스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국민들에게 국왕이 허용하는 것과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도록 가르쳤소.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같은 교리가 있을 수 있소?' 낙스는 말하기를 '마담! 올바른 종교는 그 기원과 권위를 세속 군주들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은 자기 종교를 자기네 군주들의 식성에 맞출 필요는 없는 것이요.'

여왕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군주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낙스는 군주들이 '통치 영역을 넘어' 벗어난 경우에는 '힘으로라도 항거해야 한다'고 했다. 낙스의 이 같은 단호한 입장에 놀란 여왕은 자기 생각엔 로마 교회야 말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낙스는 '마담! 당신의 뜻은 불합리하오. 당신의 사상도 로마의 창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결한 신부로 만들지 못하오.'라고 말하였다. '내 양심은 그렇지 않다며 굽히지 않는 여왕에게 낙스는 '양심도 지식이 있는 양심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응수하였다. 여왕은 말머리를 성경 해석 문제로 돌렸다. '당신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들은 저렇게 해석하는데 누가 시비를 가릴 재판관이요/' 낙스는 '당신은 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의 말씀의 교훈을 벗어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믿지 마시오. 그리고 애매한 곳이 있다면 결코 자기 모순이 없으신 성령께서 다른 곳에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대답하였다.

... 낙스가 그녀의 결혼 문제까지 건드리게 되자 ... 여왕은 심히 통곡하며 말하기를 '나는 당신의 가혹한 말투를 지금까지 용서해왔소 ..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기어이 복수를 하겠소.'라고 하였다. 여왕의 눈물을 보며 낙스는 말하기를 '설교장소'에서 자기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다만 '진리를 분명하게 말하고, 땅 위의 그 어떤 육체에도 아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왕은 말하기를 '그렇지만 당신이 내 결혼과 무슨 상관이요? 이 나라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라고 물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태어난 신하요. 마담! 나는 이 나라에서 백작도 영주도 그렇다고 남작도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보기에 그렇게 비천해 보이는 나를 이 나라안에서 유익한 시민으로 만들었소.'

⁹⁷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 진리의 깃발, 2003) pp.80-81

토의주제

1. 개혁주의 혹은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신학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초기 개혁주의 시대와 현대 개혁주의 교회가 직면한 상황은 매우 다르다. 현대 개혁주의자들이 참된 교회를 세울 때 유념해야 할 사회적 특징은 무엇인가?
3. 김재성 교수는 “개혁주의야 말로 교육과 사회, 민주주의적 인권 존중과 근면한 인생관 정립에 가장 빛나는 업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한다. 개혁주의의 역사적 업적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4. 참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목회적 교훈을 생각해보자.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재성, 「개혁신학의 광맥」 (서울 : 이레서원, 2001)
김재성, 「개혁신학의 정수」 (서울 : 이레서원, 2003)
김재성, 「개혁신학의 전망」 (서울 : 이레서원, 2004)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 진리의 깃발, 2003)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 IVP, 2005)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서울 : 고신대학교 출판부, 2007)
양낙홍, 「에드워즈 생애와 사상」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3)
황대우, 「칼빈과 개혁주의」 (서울 : 도서출판 깔뱅, 2010)

2. 번역서

- 더글라스 스위니, 「에드워즈의 말씀 사역」 김철규 역 (서울 : 복있는 사람, 2011)
마틴 로이드 존스, 「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서문강 역 (서울 : 생명의 말씀사, 1990)
스탠포드 리드 외,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홍치모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조엘비키 외, 「청교도를 만나다」 이상웅, 이한상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10)
조나단 에드워즈, 「신적이며 영적인 빛」 백금산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4)
존 레이스,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 (서울 : 반석문화사, 1992)
T.H.L 파커, 「칼빈신학입문」 박희석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존 T. 맥닐,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 정성구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0)
존 파이퍼,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이용중 역 (서울 : 부흥과 개혁사, 2007)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원광연 역 (서울 :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제임스. K.A. 스미스 「칼빈주의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장호준 역 (서울 : 새물결 플러스, 2010)
피터 튠, 「청교도와 칼빈주의」 양낙홍 역 (서울 : CLC, 2009)

3. 논문

- 기독교사상 3권 10호 p. 7-10 「칼빈의 후예들」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9)

4. 신문기사

- 송태복 「한국교회 진단 (4) 칼빈주의 마녀사냥 역사 감추고 한국서만 기세등등」 (천지일보 2014년 10월 15일)